

에 세 이

이색체험마을



김동정/아동문학가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일명 '이색체험마을'로 불리는 조그마한 동네. 농림부에서 지정한 농촌체험마을인 이곳에 언제부터인가 도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도시에서는 좀체로 맛볼 수 없는 이색체험을 즐기기 위해서다.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을엔 신기하고 재미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하다. 수확철이 거의 끝난 요즘에도 체험 행사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탁 트인 서해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갯벌, 때 묻지 않은 논과 밭은 서천이 내세우는 자랑거리다. 이색체험마을은 이런 지역의 특성을 도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중앙 정부와 군(郡), 주민들이 합심해 만든 일종의 그런 어메니티다. 도시민들에게 전통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들의 소득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작년 4월에 만들었다. 화산리 마을을 이끌어 가는 임취기 이장은 "우리 마을은 농림부

정책에 의해 서천군에서 처음 생긴 농촌체험마을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시민들에게 아랫목 같은 곳이라며 민박과 체험 행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얻는 소득도 상당하다고 체험마을을 만들게 된 동기를 들려준다.

다 알다시피 오늘날 농촌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기 어렵고 매년 찾아오는 자연재해는 그런 농민들의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안겨 주고 있다.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 이른바 그런 어메니티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돼 여전히 대부분의 농촌은 가난한 살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체험마을이 생기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도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천읍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기산면 화산리는 걸보기에는 여느 농촌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면 뭔가 다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돌담이 인상적인 마을 진입로는 시골 특유의 소박함이 묻어난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연못 위로 나무다리가 놓인 연꽃 정원이 반긴다. 때가 때인지라 연꽃은 다 말라 바람에 나풀거린다. 마을 앞 논에서는 흙갈이가 한창이다.

화산리에는 현재 102가구 293명이 살고 있다. 나이 지긋한 장년 세대와 노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색체험마을이 조성되면서 잃었던 활기를 되찾고 있다. 마을 한가운데 들어선 식물예술원은 이름 그대로 수생식물, 돌, 분재, 나무, 조각품이 모여 있는 예술 공간이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훌륭한 예술품처럼 멋이 있다.

식물예술원 한쪽에 있는 갤러리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각종 전통용기 800여 점을 모아놓은 용기전시장은 마을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투박함과 질박함이 물씬 풍기는 용기는 이 마을의 터줏대감인 김재완 서천군 향토문화연구회장(66세·전 기산초교 교장)이 제주도에서 북한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수집한 것으로써 멀리 중국의 연변에서 가지고 온 것들도 있다. 선사시대부터 일제 때까지 다양한 종류의 용기 표면에는 하나같이 꽃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선조들의 유려한 손놀림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초등학교 교장을 정년 퇴임하고 이 마을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김 선생은 용기 말고도 분재에도 관심이 많아 앞으로 분재박물관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살림집 앞에 전시해둔 각종 분재와 용기는 그런 김 선생의 의지와 정성이 배인 결과물이다. 키 작은 해송, 작은 키에 열매를 주렁주렁 매단 과실나무 등 자연의 일부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하다.

이번에는 마을 입구에 있는 기산 초등학교로 가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문화 학습박물관'을 갖추고 있어 농촌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은 물론 인근에 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박물관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역사와 실습 자료 400여 점을 전시해 놓고 있다. 이 학교 개교(1934년)이래 70여 년간 전교생과 교직원의 사진 등 각종 자료를 고스란히 볼 수 있어 초등학교 교육박물관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추억을 꺼내고 싶은 어른들에게 아주 좋은 곳이다.

이색체험마을에서는 연중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보통 1박2일로 짜여 있으며 시골밥상 맛보기, 부싯돌로 불 피우기, 도구 없이 밥 해먹기, 간단한 사냥도구 만들기, 수수짚 안경 만들기, 연잎 칼국수 만들기, 호박호빵 만들기, 굴 구워먹기, 별자리 찾아보기, 신성리 갈대숲 돌아보기, 춘장대 갯벌 체험, 서해바다 해님이 구경, 강 하구 철새 탐조, 이색주 마시기, 고구마·군밤 구워먹기 등 흥미진진한 체험과 더불어 옛날 서민들의 전통 놀이인 고누두기 체험 및 솟대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콩 볶아먹기, 천연 염색 등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엄나무로 만든 콩국수, 찜빵, 동동주, 엑기스, 오디(뽕나무)로 만든 와인,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입맛 당기는

먹을거리도 있어 가족 단위의 체험관광지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자체 개발한 연잎, 뽕잎, 엽나무 칼국수는 인스턴트식품에 폭 빠져버린 도시민들에게 색다른 입맛을 제공한다.

마을 안에 깨끗한 민박집(향나무집, 밤나무집, 대추나무집, 자두나무집 등 10여 농가)이 있어 잠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용가격은 1인 기준으로 10,000원을 받는다. 프로그램 비용은 어른이 3만5천원, 어린이가 3만원 선이다. 이색체험마을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50선에 뽑혔고 2004년에는 가장 가보고 싶은 농촌마을로 선정됐다. 마을 관계자는 지금까지 30여 회에 걸쳐 1500여 명의 도시민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이만하면 농촌체험마을로 성공한 것이 아닐까.

서천은 볼거리 또한 풍성하다. 이색체험마을에서 29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15분

쯤 내려가면 신성리 갈대밭이 나온다. 이곳에는 11월이면 철새가 찾아온다. 길게 자란 갈대가 강바람 들바람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이곳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촬영지로 금강하구둑과 연결돼 있다. 한산면 종지리엔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의 생가가 있으며 고려조 목은 이색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문헌서원, 중부 지방의 독특한 초가집으로 손때 묻은 유물이 남아 있는 이하복 전통 가옥도 지적이다.

■ 찾아가는 길=서울→서해안고속도로 서천 나들목→서천(602번 지방도)→기산면 소재지→화산리→이색체험마을. 체험 프로그램 문의: 방세종(011-9823-6116), 임휘기(010-7724-7743), 서천군농업기술센터(041-950-7131). 마을 홈페이지(<http://esec.go2vil.org>)

